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9790
원 고	이 00외 48명
피 고	주식회사 00
소 제기일	2003. 8. 14. (2005. 10. 6. 제1심 선고)
판결 선고일	2006. 5. 17.
쟁 점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들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66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는 건설회사로서 A아파트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1995. 11. 20. 준공검사를 받았고, 원고들은 A아파트의 준공검사일인 1995. 11. 20.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A아파트로부터 약 40m 떨어진 곳에 위치함)를 분양받아 소유 및 점유·사용하고 있거나, 1995. 11. 20. 이전에 분양받은 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이후에 소유 및 점유·사용하고 있다.
2. A아파트가 신축되기 이전에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는 일조권침해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신축한 A아파트로 말미암아 원고들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일조권을 침해당하였다.
3. 원고들은 A아파트의 준공검사일인 1995. 11. 20.로부터 3년이상 경과된 2003. 8. 14.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쟁점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 법원의 판단

1.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 285 판결 참조), 손해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가해행위 자체가 이미 종결되어 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속적 손해는 피해자가 가해행위시에 실제로 인식한 손해와 연계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당초부터 그 발생에 대한 예견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 손해 전체에 대하여 처음부터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고 보아 그 불법행위시에 전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A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불법행위는 준공검사 이후에는 더 이상의 적극적인 가해행위가 없었고, 또한 부작위에 의한 가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A아파트에 대한 철거의무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일조침해가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러한 철거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불법행위는 건축행위의 종료와 함께 종결되고 다만 그 손해만이 계속하여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는 그 전체에 대하여 피고가 A아파트의 건축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은때에 이미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로부터 전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 등을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평가까지 알았을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는 달리 손해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가해행위 자체가 이미 종결되어 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속적 손해에 대한 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전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은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는 건축행위의 종료와 함께 종결되고 다만 그 손해만이 계속하여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건축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